

2017년 통권 제 2호

# 2017年度 歷史紀行班 江華島踏查



亞洲大學校 史學科 歷史紀行班

# 목차

- i. 답사 일정
- ii. 우리가 가는 길
- iii. 강화도 지역개관
- iv. 강화 역사박물관

## <선사시대>

- 1. 강화지석묘

## <고려시대>

- 2. 전등사
- 3. 정족산 사고
- 4. 삼랑성
- 5. 고려궁지

## <조선시대>

- 6. 갑곶돈대
- 7. 광정보
- 8. 덕진진
- 9. 초지진

## <읽기자료>

- 10. 병인양요
- 11. 신미양요
- 12. 성공회 강화성당

## 답사 일정

### <첫째 날>

강화 역사박물관 → 강화지석묘 → 갑곶돈대 →  
광성보 → 덕진진 → 초지진 → 숙소 도착

### <둘째 날>

숙소 출발 → 전등사 → 고려궁지 → 성공회 강화  
성당 → 아주대학교 도착

## 우리가 가는 길



TP.1 강화역사박물관	5 덕진진
2 강화지식묘	6 초지진
3 갑곶돈대	7 전등사
4 광성보	8,9 고려궁지, 성공회강화성당

## 강화도 지역개관

17 이승현



▲강화도 지도

강화도는 대한민국 경기 만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에서 4번째로 큰 섬이다. 강화도는 원래 김포반도의 일부였으나 오랜 침식작용으로 평탄화된 뒤 침강운동으로 육지에서 구릉성 섬으로 떨어져 나왔다. 현재의 강화도는 11개의 유인도와 1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있다.

《삼국사기》 제37권에 의하면 강화를 '혈구군' 또는 '갑비고차'라고 했으며 고구려에 속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다시 신라 제35대 경덕왕이 이름을 바꿔 해구(海口)군으로 개칭하였으며, '강화'라는 이름은 고려 태조(940)에 이르러 강화현으로 개칭되었고, 고려 고종 때(1232) 강화군으로 승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 교동군을 강화군으로 편입하였고(1914), 1995년도에 비로소 경기도에서 인천 광역시로 통합되었다. 강화는 강과 관련된 지

명으로, 한강, 임진강, 예성강등의 '여러 강을 끼고 있는 아랫고을'이라고 하여 강하(江下)라고 부르다가 '강 아래의 아름다운 고을'이라는 뜻으로 강화(江華)라고 고쳐 불렀다.

강화도는 서울 근교의 사적 답사지로 매우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단는 곳이다.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에서 근현대까지의 많은 유적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화지석묘가 있다.

그리고 강화도는 주로 외부의 침입에 저항하기 위한 군사요충지로 사용되어 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등의 전쟁과 관련된 유적지들이 많다. 많은 군사시설을 갖고 있는 강화도가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정조는 외규장각을 지어 나라의 중요한 책들을 보관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역사학자 호암 문일평<sup>1)</sup>이 『조선사화(朝鮮史話)』 「고적(古蹟)」 편에서 강화를 “역사의 고

1) 한국의 사학자 겸 언론인. 《조선일보》 편집고문 등으로 활약하였으며, 국사 연구에도

장, 시의 고장, 재물의 고장”이라고 했던 것처럼 몽골의 침입, 삼별초의 난, 병자호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강화는 역사 속에서 수난의 땅이었다. 전쟁과 관련된 유적 외에도 전등사, 삼랑성, 정족산사고, 성공회<sup>2)</sup>강화성당 등이 있다.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역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역사교과서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강화도답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대별로 배우기를 바란다.

---

노력을 기울여 《조선사화》, 《호암전집》, 《한국의 문화》 등을 집필

2) 16세기 종교개혁 때 분리된 영국성공회의 한국 교구로, 1889년 9월 29일 주교 고요한(Corfe, C. J.)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 선 사 시 대 (先 史 時 代)

강화지석묘

## 강화 역사박물관

17 김혜원



▲강화 역사박물관 입구

강화역사박물관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50-4번지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 제137호 강화 고인돌 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이 박물관은 2010년 10월 23일에 개관하였으며, 강화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역사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총 4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고, 옥외에는 갑곶돈대를 비롯하여 해선망 어선, 비석군 등을 볼 수 있다.

자세히 말하면, 강화역사박물관 1층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과 역사적 사건들을 차례로 관람할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 2층은 구석기부터 청동기에 이르는 선사시대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옥외에는 갑곶돈대를 비롯한 비석군 등을 볼 수 있다. 이때 갑곶돈대란 고려가 1232년부터 1270년까지 도읍을 강화도로 옮겨 몽고와의 전쟁에서 강화해협을 지키던 중요한 요새로, 대포 8문이 배치된 포대이며, 돈대는 작은 규모의 보루를 만들고 대포를 배치하여 지키는 곳이다. 다음으로 비석군이란, 조선시대에 선정을 베푼 유수·관관·경력·군수의 영세불망비 및 선정비와 자연보호의 일환으로 세운 금표, 삼충신을 기리는 삼충사적비 등 총 67기의 비석이 모여 있다. 1965년 강화대교 건설공사가 착공될 때 그 주변에 있던 비석들을 용정리로 옮겼다가 비석군 정비 사업을 통해 현 위치인 강화역사박물관 앞으로 다시 옮겼다.

박물관의 관람순서는 선두포축연시말비→강화 동종→ 2층 전시실→고인돌의 땅 강화→신나는 청동기시대 탐험→강화의 열린 바닷길 이야기→고려 강화→조선·근대 강화→삶과 민속품→강화의 관망유적→영상실→전통한옥실 순이다.



## 강화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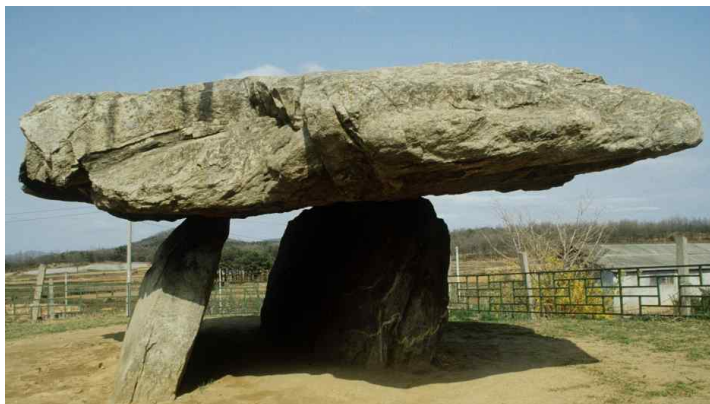
17 류다영

### 지석묘 소개

‘지석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동기 시대 무덤인 고인돌을 뜻하는 단어이다. 지석묘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탁자 모양으로 되어있으며 지상에 4면을 판석으로 막아 묘실을 설치한 뒤 그 위에 상석을 올린 형식 탁자식 북방식 지석묘와 지하에 묘실을 만들어 그 위에 상석을 놓고 돌을 괴는 형식인 남방식 지석묘가 있다.

### 강화지석묘 소개

강화지석묘는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에 있다. 지상에서의 높이는 2.6m이고 덮개돌의 길이는 7.1m, 너비 5.5m이다. 모두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1964년 7월 11일에 사적 137호로 지정되었다.



▲ 강화지석묘

고인돌을 만들 때 돌의 무게가 수십 톤일 뿐만 아니라 운반하고 쌓아야 했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이에 고인돌을 보고 청동기 시대 당시 지배층의 권력을 엿볼 수 있는 유적지이다. 이 고인돌 주위에 파괴된 고인돌이 발견되고, 강화도 삼거리, 하도리 등지에 약 10기의 고인돌이 발견됨에 따라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만들어지던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 강화지석묘 특징

강화지석묘의 특징은 대략 5가지로 정할 수 있다. 첫째, 고려, 봉천, 별립산 등의 산지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고려산 주변에 약 90기의 고인돌이 있어 세 산 중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어 봉천, 별립산 주변엔 32기가 분포되어 있으며 북쪽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약 10여 곳의 지역에 고인돌 150여 기가 분포하는데 한 유적에 평균적으로 약 14기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다. 셋째, 강화도의 고인돌들은 주로 산의 경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로 보아 옛날에는 지금 평지인 곳이 바닷가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넷째, 북한 지역에 탁자식 고인돌이 많은데, 그 곳 보다 더 많은 탁자식 고인돌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혈(星穴)<sup>3)</sup>이 있는 고인돌은 3개뿐이라는 것이다. 성혈은 주로 개석식 고인돌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대다수가 탁자식 고인돌이기 때문에 성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정한다.

---

3) 죽은 자에 대한 영생을 기원하기 위해 하늘의 별자리를 표현한 5개의 구멍. 주로 개석식 고인돌에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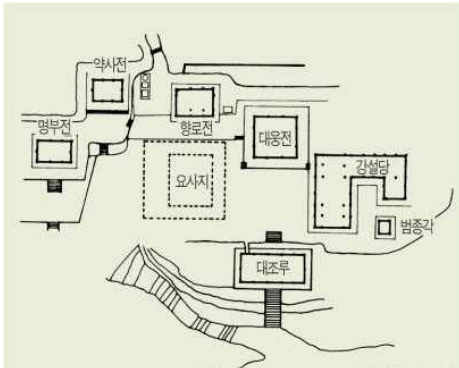
## 고 려 시 대 (高麗時代)

전등사  
정족산 사고  
삼랑성  
고려궁지

# 전등사

17 박지은

## 전등사의 창건과 역사



### ▲전등사의 가람배치도

바꾸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전등’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불법(佛法)의 등불을 전한다.’는 뜻으로, 법맥을 받아 잇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당시 정화공주는 송나라에서 펴낸 대장경을 구해 전등사에 보관하게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화공주의 옥등 설화보다는 송나라에서 전해진 대장경 때문에 전등사로 명칭을 바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근거가 있다. 숙종 4년(1678년) 조정에서 실록을 보관하기 시작해 사고(史庫) 역할을 하면서 전등사는 조선왕조와 더욱 깊은 연관을 맺게 된다. 조선말기로 접어들면서 전등사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겪었다. 1866년 병인양요로 인해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양헌수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강화해협을 건너와 정족산성과 전등사를 주둔지로 정했다. 당시 프랑스군은 강화읍성과 외규장각을 불 지른 후 전등사를 다음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양헌수 장군의 군사들에게 공격을 당해 프랑스군이 크게 패하고 퇴각하게 된 것이다. 이 전투가 끝난 뒤 프랑스 함대는 조선에서 물러갔고 조정에서는 전투의 승전을 기리기 위해 양헌수 장군 승전비를 전등사 초입에 세웠다. 그런데, 이 승리의 뒤에는 숨은 공헌자들이 있었다. 화려하고 웅장한 대웅전 불상, 그 옆의 낡은 벽과 기둥을 보면 여기저기 먹으로 써놓은 글씨들이 눈에 띈다. 이는 관광객들의 낙서가 아니라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강화를 지키던 병사들이 남긴 기도문과 이름들이다. 조선의 관군뿐만 아니라 승려와 농민들로 구성된 우리 병사들은 대웅전 벽에 이름 석 자를 쓰면서 전투의 승리와 자신의 안위

를 부처님께 기원했다. 벽에 적힌 군인들의 활약으로 전투는 승리했고, 실록과 수많은 왕실 문서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 전등사의 대조루(對潮樓)

전등사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2층 건물이 대조루이다. 대웅전으로 오르는 문루 역할을 하고 있으며, 2층에 '傳燈寺'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이곳에 오르면 서해바다의 조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해서 대조루라 한다. 대조루 안에는 지금도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던 보각의 현판인 선원보각, 장사각(藏史閣), 추향당 등의 편액이 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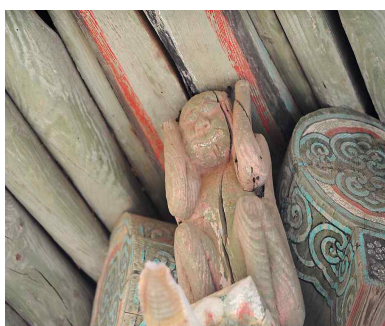


▲대조루



▲전등사의 대웅보전

## 전등사의 대웅보전



▲ 대웅보전의 나녀상

현재의 대웅보전은 조선 광해군 13년(1621)에 지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각기법은 그보다 한참 후대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대웅보전은 다양한 건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조선 중기 이후의 다포집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로서 처마 끝이 날아갈 듯 들리도록 했다. 처마아래에 나녀상을 조각해 놓은 것도 건축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나녀상과 관련해서는 전설이 전해져오는데 그 내용은 대웅보전 공사를 맡았던 도편수와 정분이 난 주모가

도편수의 돈을 들고 도망을 치자 복수의 방법으로 그녀를 닮은 나체상을 대웅보전 처마에 조각해 넣는 것이었다.

## 전등사의 약사전

대웅보전 서쪽에 있는 약사전은 중생의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여래를 모시고 있는 법당이다. 건물의 구조가 대웅전과 같은 형식이어서 대웅전을 지을 당시 함께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과 비슷한 팔작지붕이고 건물 주위에는 화려한 연꽃무늬와 덩굴무늬를 그려 놓았다.

## 전등사의 범종



▲전등사의 범종

8괘를 배치한 것도 특이한 점이다.

높이 1.64m, 밑지름이 1m인 중국 송나라 때 동종이다. 종몸의 아래 위에 8개의 사각형 구획을 마련하고 그 안에 새긴 뚜렷한 명문이 남아 있다. 명문 내용으로 이 종은 북송(北宋) 철종 소성(紹聖) 4년(1097)에 제작한 하남성 백암산(百巖山) 숭명사(崇明寺)의 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범종은 일제시대 말기 금속류의 강제수탈 과정에서 중국에서 건너온 철종으로서 광복 후 부평 군기창에서 발견하여 전등사로 옮겨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다. 이 종은 우리나라 범종과는 달리 음통이 없다. 쌍룡이 등을 마주해 꼭지를 이루고, 용두 주위에는 16잎의 연꽃이 둘러져 있다. 종몸을 상중하로 나눠 띠를 두르고 매화문을 새겼으며, 띠 윗부분에

## 전등사의 양헌수 장군 승전비



▲ 양헌수 장군 승전비

1866년 병인양요가 발발하자 정족산성의 수성장이 된 양헌수는 광성보를 지키게 된다. 하지만 프랑스군이 물밀듯이 밀려들자 양헌수는 몰래 군대를 이끌고 정족산성에 매복한다. 10월 3일 프랑스 군대는 정족산을 함락시키러 들어왔다가, 매복해 있던 양헌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조선군은 이 전투에서 많은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고 마침내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구식무기조차 빈약한 조선군이 신식무기를 앞세운 프랑스군을 섬멸시켰다. 이 공로로 양헌수는 한성부좌윤에 임명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등사에 승전비를 세웠다.

# 정족산사고

17 전해인

## 유래와 역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의 정족산성 안 전등사 서쪽에 있었던 사고이다. 정족산사고가 설치된 계기는 마니산사고가 1653년(효종 4) 11월 실록각의 실화사건으로 많은 사적들을 불태우게 되자 새로이 정족산성 안에 사고 건물을 짓고, 1660년(현종 1) 12월에 남은 역대 실록들과 서책들을 옮겨 보관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사고(史庫)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당대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서적이나 문서를 보관하던 곳이다. 고려는 개국 직후부터 사관을 두고 실록을 편찬했으나 거란의 침입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이후 고종대인 1227년부터는 개경 이외에 해인사에 한부를 보관하였다.

정족산사고는 조선후기에 설치된 4곳의 외사고(外史庫) 중 하나이다.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지 않았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사고본을 인조대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보관하던 곳이다.

1866년 병인양요 때에 강화도를 일시 점거한 프랑스의 해병들에 의해 정족산사고의 서적들이 일부 약탈되기도 하였다. 이 사고에 봉안되었던 역대 실록 및 서적들은 서울로 가져가기도 하고, 일부는 약탈되는 등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춘추관의 관장 하에 관리되어왔다.

대한제국시대에는 의정부에서 관원이 파견되어 강화군수와 협력하여 관리하고 포쇄를 실시하며 보존하였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가 국권을 빼앗은 뒤부터 정족산사고본은 태백산사고의 실록들 및 규장각의 도서들과 함께 조선총독부 학무과 분실에 이장되었다. 이 후 1930년에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겨진 뒤, 광복으로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로 개편, 발전되면서 서울대학교에 옮겨 보존, 관리되고 있다.

현재 정족산사고지는 정족산성 안 전등사 서쪽 높이 150m에 위치하며, 사고지의 보호철책 안쪽에는 주춧돌들이 놓여져 있다. 또한, 성내에는 수호사찰인 전등사가 사고를 보호해왔으므로 1910년 조선총독부 학무과 분실로 실록과 서적들이 옮겨질 때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

사고 건물이 언제 없어졌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31년에 간행된 《조선고적도보》에 정족산사고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를 전후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 건물에 걸쳐 있었던 ‘장사각’과 ‘선원보각’이라 쓰인 현판이 전등사에 보존되어 있다.

이 사고에 보관되어오던 정족산사고본 실록들은 많은 변동은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에 유일본으로 남은 전주사고본이 묘향산사고로 피난했다가 마니산사고로 옮겨졌고, 이 마니산사고본의 잔존실록들을 옮겨서 보관, 관리해 오늘에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 구조 혹은 건축양식

사고에 속하는 수장시설은 조선 전기까지는 실록 등 사료를 보관하는 건물뿐이었으나 인조 때인 1629년부터 강화부에만 보관하던 선원록(璿源錄)을 다른 사고에도 보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조선 후기의 사고에는 사각과 선원각이라는 두 가지 수장용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나 이들은 보관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규모에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같은 사고의 사각과 선원각은 대체로 유사한 유형의 건축적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고 건물들을 분석한 초기 연구로는 1985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조사작업의 일환으로 집필된 김동현과 김동욱의 “조선시대 사고의 건축양식”을 들 수 있는데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사진과 조사된 내용 등을 토대로 정족산사고 건물을 포함한 사고 건물들의 배치, 평면, 입면 및 각부의 형태 및 재료 등에서 나타나는 대략적인 특징을 해설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형 분류 명칭을 따로 부여하지 않았지만, 태백산사고와 오대산사고 건물들이 유사한 평면 규모 및 공간 구성을 가졌고, 적상산사고, 강화 사고가 각각 구분되는 특징을 지녔음을 적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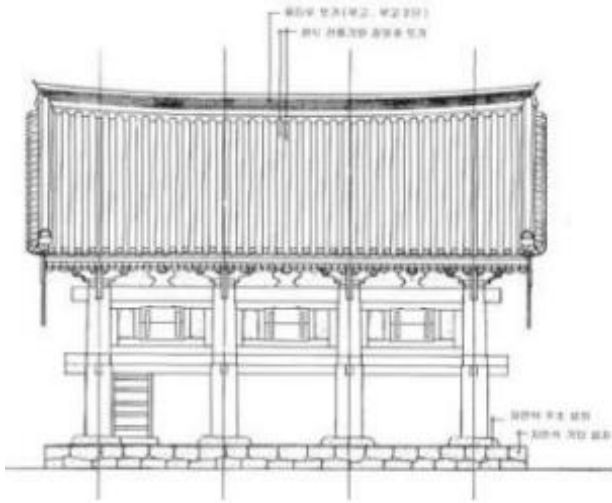
김홍섭은 그의 한국 창고 연구에서 사고를 다루면서 이들 사고 건물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 태백산사고형, 누형, 강화사고형이라 명명하였다. 최근 문화재청의 4대사고 연구에서는 이 분류를 그대로 준용하였고, 다만 각 명칭에 유형별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태백산사고형을 중층지붕형, 누형은 그대로, 강화사고형을 화방벽설치형으로 다시 명명하였다. 이 분류에 따르면 중층지붕형은 태백산사고와 오대산 사고의 사각 및 선원보각이 속하며, 2층 구조에 상층과 하층의 지붕을 따로 설치한다. 2층에 바닥을 설치하여 수장공간으로 사용했는데, 선원각들은 1층을 벽으로 막지 않았지만, 사각들은 1층의 일부 또는 전부에 벽과 창호를 설치하여 실내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적상산사고의 사각 및 선원각이 해당되는 누형은 상층에만 벽을 두른 2층의 고상식 건물이다. 4대 사고 보고서에서는 조선 전기의 증중실록에 묘사된 성주사고 건물도 이 유형으로 생각되며, 당시 서책 보관 건물 형태로 보편적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강화 정족산사고 사각과 선원각에 쓰인 화방벽설치형은 화재에 대비하여 건물 벽체를 반화방벽으로 감싼 단층의 맞배지붕 건물로, 일반 목조 건물과 외형상 큰 차이는 없다. 화방벽 하부에는 둥근 통풍용 환기구를 뚫어 놓았다.

이처럼 현재 남은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각 외사고의 건축물들은 얼핏 보기에는 그 형태가 제각각이다. 춘추관에 있었던 내사고를 제외하면 전국에 고작 4개 처 뿐이었고 그나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분산시켜 놓았기 때문인지, 국가에서 외사고의 주요 건물들에 대하여 어떤 일률적인 형태나 배치를 추구하는 건축적 규격이나 지침을 정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세 지역의 외사고가 1층의 수장공간 설치 여부, 중층지붕의 채용 여부 등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모두 중층 구조를 취한 것과 대비되는 정족산사고 사각의 형태는 이러한 형태를 결정하게 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 중층지붕형: 태백산사고 (조선고적도보)



▲ 누형 : 적상산사고 선원각 복원도 (문화재청)



▲ 화방벽설치형(단층) : 정족산사고 장사각 (조선고적도보)

##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

각기 사고의 경우 건축구조가 다 같지는 않은데 대개는 온칸물림형 중층건물이나 누각 건물과 같은 중층건물로 구성되지만 예외적으로 강화도에 위치한 정족산 사고만 단층건물로 구성된다.

현존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그 자체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헌이나 그림, 사진 등의 상세한 자료가 부족할 때, 그 건물에 부여된 기능, 그리고 그에 따

른 계획 방침에 대한 궁구를 통하여 건물 형태가 결정된 요인을 추정하거나 복원안의 불분명한 부분을 결정하는 실마리를 도출하는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적 시각으로 해당 건물의 기능에 대하여 독단적인 추정을 끌고 가지 않도록 건물 자체의 형태에 대한 것은 아니라도 그 기능에 대한 동시대의 시각을 담은 사료를 가급적 많이 모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은 사고 건물처럼 기능 자체에 충실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는 건물에까지 적용할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내세우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라 생각된다.

## 삼랑성(정족산성)

17 최우리

삼랑성에서는 2001년을 시작으로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가 약탈한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기 위해 범국민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1년에는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받았고, 이에 더 나아가 삼랑성의 역사적 중요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강화군, 인천광역시, 한국관광공사, 전등사를 통해서 조직위원회가 주최를 하고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으로 외규장각 도서이라 함은 규장각에서 만들어진 각종 책들 가운데 영구히 보존할 목적을 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에 보관한 책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책들 가운데 의례는 조선의 유교 정치의 한 부분 보여주는 사료로서 그 중요성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통해 외규장각 도서반환의 열망을 범국민 운동으로 보여주었는데, 역사문화축제가 열릴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삼랑성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랑성 종해루(남문)

우선 이름을 보면 삼랑성은 정족산성이라고도 불립니다.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 이름인 정족산성이라는 이름은 모양이 세 발을 가진 술을 닮은 정족산에 있다고 하여 붙여졌습니다. 다른 이름인 삼랑성이 붙여진 계기는 단군의 세 아들이 삼랑성 지었다고 ‘삼랑성’이라고도 하였고, 사료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료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번역과 주석을 한 ‘국역증보문헌비고’의 한글로 번역된 사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古朝鮮) 단군(檀君) 아들 부루(夫婁) [1백 27년에 도산(塗山)에 모여 조회(朝會)하였다.] 3자(子) [세상에서 전하기를, "강화(江華)의 정족산성(鼎足山城)은 단군(檀君)이 3자로 하여금 쌓게 한 까닭으로 삼랑성(三郎城)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처럼 정족산성과 삼랑성의 두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군에서부터 시작한 삼랑성의 길었던 역사를 살펴보면, 삼랑성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현재 삼랑성이 둘러싸고 있는 전등사의 경우는 고구려

소수림왕 당시에 진중사라 하여 지어졌고, 고려사에서 직접적인 삼랑성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삼랑성(三郎城)과 신니동(神泥洞)에 임시 대궐을 짓게 하였다. 왕이 사당동(社堂洞) 민수(閔修)의 관저로 옮겨 있었다. 5월 을사일에 열두 공신에게 각각 은병 5개와 쌀 20석을 주고 그 나머지 공신에게도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이것을 “단오 선사-端午宣賜”라고 하였다.

위의 글은 고려사에서 고종 무오 45년(1258년)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삼랑성은 고려 왕조가 강화도로 피신해가며 임시 거처로 사용하였고, 보수한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왕조가 지정학적 위치로 강화도를 피신처를 사용한 것을 바탕으로 임진왜란으로 혼란을 겪은 조선 시대에도 효종이 피신처로 인식하여 정족산 사고를 짓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이후 1660년에 현종이 정족산 사고를 완성시켰습니다.

피난처로 항상 인식되던 강화도는 반대로 개항 전후에는 한양과 인접하여 가장 침입을 많이 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치를 하여 천주교를 탄압하고, 프랑스 신부를 살해한 것을 구실이 되어 고종 3년(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입하였습니다. 조선군은 프랑스군의 한양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양현수를 중심으로 정예부대를 편성 후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병인양요 당시 정족산성에서 펼쳐진 이 전투를 ‘정족산성전투’라 합니다. 이 후 고종 10년(1873년)에 양현수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한 승전비를 삼랑성 동문 오른쪽에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 고려궁지

17 이응경

## 고려궁지 소개

고려궁지는 강화군 강화면 관청리에 있는 고려궁궐이다. 고려 고종 19년에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송도에서 강화로 터를 옮겼다. 이때 옮겨진 도읍터가 고려궁지로 원종11년 할 때까지 1232년부터 1270년까지의 39년 동안 고려궁궐터이다. 강화도의 고려궁궐은 송도의 궁궐보다는 규모는



▲고려궁지

작았지만,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궁궐 뒷산의 이름까지도 ‘송악’이었다. 궁궐 뒷산의 이름을 송악이라 하여 왕도의 제도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631년 행궁을 고려 옛 궁터에 건립했다. 장녕전을 지어 조선 태조와 세조의 영정을 모셨다. 조선왕조도 국란에 가화를 피난지로 선정했던 것이었다. 병자호란당시 강화성이 청군에게 함락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고려 궁터에는 조선 궁전 건물 장녕전, 행궁, 만령전, 봉선전, 세심재 등이 있었다. 또한 강화고려궁지에는 외규장각과 강화 유수부가 있었다. 4)강화유수부 건물들과 규장외각에는 많은 장서와 문서가 보관되었다. 1782년에 지어진 외규장각은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면서 소실되었고, 이곳에 보관되어 있던 의례는 프랑스군이 약탈해갔다. 지금은 유수부의 동헌과 이방청 건물만이 남아있다.

강화에 용암궁, 장봉궁, 관서궁이 있었으며, 지금 사적으로 지정된 관청리 부근이 정궁이 있었던 터로 추정된다. 마니산 이궁지는 터가 남아있고 삼랑성 가곶지도 전등산 뒤에 남아있다. 신니동 가곶지는 선원면 도문고개 남쪽 언덕 송림 속에 초석이 남아있다. 궁내에는 많은 5)관아와 창고와 행각과 문이 있었고 성 밖

4) 강화 유수부는 강화의 특수 행정 체계이다. 조선왕조는 수도 방위를 위해 한성부 주변의 행정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주·부·군·현의 일반적인 행정 체계와는 별도로 특수 행정체계인 유수부를 설치, 운영했다.

5) 관원들이 정무를 보던 건물

에서도 수천의 민가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터가 모두 인멸되어 확실한 건물지를 알 수 없다. 1270년 고려가 송도로 환도할 때 몽골군에 의해 많은 민가가 헐어지고 궁도 허물어졌다. 조선시대 관아로서는 이아(이방청), 삼아향청, 형옥, 진무영, 열무당, 연무당, 중영, 만하헌, 별효사청, 명위헌등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고려궁지에는 1638년 (인조16)에 건립되었던 현윤관이 남아 있다. 현윤관은 1769년에 크게 증수하면서 지금 고려궁지에 현판을 붙였다. 그리고 1654년에 세운 이방청도 대대적인 보수가 여러 번 거듭됐고 1977년에도 크게 보수했다. 1977년 당시 고려궁지의 발굴 작업이 있었으나 건물지는 다 교란되어 전부 없어지고 고려시대 청자와 기와 편들만 출토되었다.

고려궁지의 규모는 원래 방대한 크기의 궁궐이었지만 다시 개성으로 천도한 뒤 무너지고 말았다. 그 후 다시 복원했을 때는 크지 않은 자그마한 규모의 궁궐로 복원이 되었다.

고려궁지의 구조를 말하자면 강화도에는 정궁 이외에도 행궁이궁·가궐 등 많은 궁궐이 있었는데, 강화읍 관청리 부근은 정궁이 있었던 터로 추정된다. 정문의 이름은 승평문이고, 양측에 삼층루의 문이 두개가 있었으며 동쪽에 광화문이 있었다. 강화 유수부 이방청의 구조는 ㄷ자형 단층기와집으로 방 8칸, 마루 12칸 그리고 부엌 1칸으로 모두 21칸으로 상당한 규모였다.



## 조 선 시 대 (朝 鮮 時 代)

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조지진

# 갑곶돈대

17 박지은

## 갑곶돈대 이름의 유래

몽골군이 고려를 침공한 당시 몽골군이 “군사들의 갑옷만 벗어 메워도 물길을 건널 수 있을 텐데” 하며 한탄하여 그 이름을 갑옷 갑(甲), 쥔 곳(串) 자를 넣어 지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유래로는 삼국시대 강화를 갑비고차(甲比古次)라 불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갑곶이라 칭했다고 전해진다.



▲ 갑곶돈대의 대포



▲ 갑곶돈대에서 바라본 풍경

## 갑곶돈대의 역사

갑곶돈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에 위치해 있는 사적 제306호 국방유적이다. 고려가 대몽항쟁시기인 1232~1270년까지 도읍을 강화도로 옮겨 몽고와의 전쟁에서 강화해협을 지키던 중요한 군사적 요새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 양란 이후로 강화도가 국가의 보장처<sup>6)</sup>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강화도를 군사적 요새로 만들기 위해 효종과 숙종에 걸쳐 강화도에 5진(鎭)·7보(堡)·8포대(砲臺)·54돈대(墩臺)를 설치했다. 54돈대 중에 속해있는 갑곶돈대는 제물진에 소속된 돈대로서 숙종 5년(1679)에 완성되었다. 돈대는 작은 규모의 보루를 만들고 대포를 배치하여 지키는 곳을 뜻하고 갑곶돈대에는 대포 8문이 배치되어 있다. 고종 3년(1866) 9월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극동 함대가 병력을 이끌고 갑곶돈대로 상륙하여 강화성과 문수산성을 점령하였다. 그 후로 10월 정족산성에서

6) 전란 때 임금과 조정이 대피하는 곳

프랑스군이 양헌수 장군의 부대에게 패하여 달아나기 전까지 프랑스군에게 점령되었다. 1997년에는 다른 전적지와 함께 복원되면서 대포와 소포 2문 등을 새로 만들어 설치·전시되고 있다.

## 광성보

17 이승현



▲광성보의 성문 ‘안해루’

광성보는 덕진진, 초지진, 용해진, 문수산성 등과 더불어 강화해협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이다. 고려가 몽고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강화로 도읍을 옮기면서 1233년부터 1270년까지 강화외성을 쌓았는데, 이 성은 흙과 돌을 섞어서 쌓은 성으로 바다 길을 따라 길게 만들어 졌다. 광해군 때 다시 고쳐 쌓은 후 효종 9년(1658)에 광성보가 처음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숙종 때 일부를 돌로 고쳐서 쌓았으며, 용두돈대<sup>7)</sup>, 오두돈대, 화도돈대, 광성돈대 등 소속 돈대가 만들어 졌다.

광성보는 1871년의 신미양요 때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다. 미국은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sup>8)</sup>을 계기로 조선의 문호 개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기회를 엿보던 미국은 1871년에 함대를 이끌고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책임과 통상 교섭을 명분으로 조선의 주요 수로였던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강화해협을 거슬러 올라왔고 조선 측의 거부를 무시하고 침입을 시도하여 교전이 일어났다. 3일간의

7) 경사면을 절토(切土)하거나 성토(盛土)하여 얻어진 계단 모양의 평탄지를 옹벽(擁壁)으로 받친 부분, 성곽이나 변방의 요지에 구축하여 총구를 설치하고 봉수시설을 갖춘 방위시설

8)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셔먼호가 서해에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 배가 불태워지고 선원들이 죽임을 당한 일

교전 결과 조선은 광성보가 함락되고 순무중군 어재연을 비롯한 수비 병력 대다수가 사망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광성보에서 승리하였지만 조선의 개방을 이루지 못하여 전략적인 패배하였다.

광성보의 경역에 들어서면 신미양요 때 순국한 어재연 장군 형제의 쌍충비가 비각과 함께 세워져 있다. 어씨 문중에서 순국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그 곁에 신미양요 때 싸운 순국무명용사비가 서 있어 그들의 충혼을 기리게 한다. 길 아래로 내려서면 7기의 분묘가 나란히 누워 있다. 그것은 신미 순의충인데 당시 어재연 장군 휘하에 있던



▲신미 순의충(7기의 분묘)

군인 51명이 모두 전사했는데, 그들의 신원을 알 수가 없어 여기 7기의 분묘에 합장하였다고 전해진다. 특히 이들 장병들은 포로가 되느니 최후까지 나라를 위해 몸 바치겠다는 결의로 격전,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어 가슴 뭉클하게 한다.



▲왼쪽에서부터 홍이포, 중간소포, 불랑기

광성보에는 당시에 사용한 대포와 포대가 잘 보존되어 있다. 그 종류에는 홍이포(포구장전식 화포로서 사정거리 700m이며 조선 영조 때부터 주조하여 사용하였다. 폭발하는 힘으로 포탄은 날아가나 자체는 폭발하지 않아 위력이 약함), 중간소포(장전 후 뒤쪽 구멍에 점화하여 사격하는 포

구장전식화포로 사정거리 300m 우리나라 재래식 화포 중 가장 발달된 형태), 불랑기(불랑기는 프랑스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임진왜란을 계기로 널리 사용된 화승포로서 포1문에 다섯 개에서 아홉 개의 자포를 결합하여 연속 사격 할 수 있는 발달된 화기)가 있다.

## 덕진진

17 천지현, 17 권오현



▲덕진진

덕진진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에 위치해있는 군사적으로 1971년 사적 제 226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1만 5018㎡이며 강화 5보 7진 중 하나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덕포진(德浦鎭)<sup>9)</sup>과 더불어 해협의 관문을 지키는 강화도 제 1의 포대였다. 덕진진은 원래 수영(水營)에 속하여 첨사(僉使)<sup>10)</sup>를 두고 있었는데, 현종7년(1666) 강화유수 서필원(徐必遠)이 임금에게 청하여 첨사를 경기도 김포시 덕포로 옮기고 이곳에

별장(別將)<sup>11)</sup>을 두었으며, 1677년(숙종 3) 유수 허질(許秩)의 청에 따라 만호(萬戶)<sup>12)</sup>로 승격시켰다. 원래 고려시대의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강화해협을 지키기 위한 외성의 요충지였으나 병자호란(1636~1637) 이후 숙종 5년(1697)에 강화도를 수비하기 위해 군사적 요새였던 덕진진을 내성과 외성, 용두돈대와 덕진돈대 그리고 덕진포대와 남장포대를 관할함으로써 성으로 다시 축조하였다. 특히 남장포대는 가장 강력한 화력을 지녔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포격 소리만으로도 적에게 위협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



▲남장포대

9)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진영으로 사적 제292호이다. 현종 7년(1666) 강화에 예측된 진이었다고 하며, 숙종 5년(1697) 강화의 광성보, 덕진진, 용두돈대와 함께 축성되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격전지이다.

10) 조선 시대 각 진영에 속한 중3품의 무관으로, 첨절제사(僉節制使)의 약칭이다.

11) 조선시대 산성·도진·포구·보루·소도 등의 수비를 맡은 중구품 무관직이다.

12) 고려·조선 시대 외침 방어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호부의 관직.



덕진진은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의 격전지로 유명하다. 병인양요 때는 양헌수(梁憲洙)의 부대가 밤에 이 진을 거쳐 정족산성으로 들어가 프랑스군을 기습하여 격파하였다. 신미양요 때는 J.로저스 중장이 이끄는 미국 극동함대와 이곳에서 치열한 포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초지진(草芝鎭)<sup>13)</sup>에 상륙한 미국해병대에 의하여 점령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이 때 성첩과 문루가 모두 파괴되고 문루지(門樓址)만 남게 되었다. 1976년 돈대와 성곽을 보수하였으며 홍예(虹霓 : 무지개 모양의 문)를 틀고 정면 3칸, 측면 2칸의 문루도 다시 세웠다. 그래서 현재는 문루(門樓)·포대(砲臺)와 성곽·돈대(墩臺)가 남아 있다.

## 덕진진 경고비

덕진진 내에는 비석 하나가 있다. 바로 덕진진 경고비이다. 이것은 덕진진 남단 덕진돈대 앞에 있으며 1986년에 강화군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되었다. 병자호란을 치른 후, 고종4년(1867)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건립되었으며 바다의 척화비라 불린다. 이 비는 장대석의 지대 위에 기단석을 놓고 대리암으로 된 비신을 세운 것으로 규모는 높이 147cm 폭 54.5cm 두께 28cm이다. 비에는 ‘해문방수 타국선신물과(海門防守他國船慎勿過)’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는 ‘바다 문을 막고 지켜라 다른 나라 배는 삼가하여 지나지 말라’는 의미로서 어떠한 외국 선박도 함부로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는 쇄국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비의 오른쪽에 충탄의 흔적이 남아 있다



▲덕진진 경고비

13)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해안선을 지키기 위하여 설치한 진이며 강화12진보 중 하나이다.

# 초지진

17 유승미

## 초지진의 역사



▲초지진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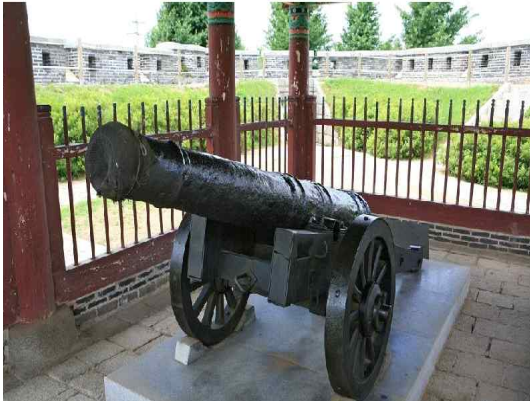
조선 말기, 해상으로부터 한양으로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吉祥面) 초지리에 구축한 요새로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초지진 설치에 관한 기사에 의하면, 조선 효종 6년(1655)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또 1870년대 미국과 일본이 침략했을 때 전투를 벌인 전적지이다. 1871년에는 미국 해병이 침략해 왔을 때 전력의 열세로 점령되었고 군기고, 화

약창고 등의 군사시설물이 모두 파괴되었다. 이곳에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운양호사건을 거치며 외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사의 아픔이 담겨 있다. 그리하여 이곳은 호국정신의 교육장이 되도록 성곽을 보수하고 당시의 대포를 진열하였다. 수많은 전투로 초지진은 완전히 손실되었고 이후 1973년 초지진의 초지돈만 복원되었는데 높이가 4m 정도이고 장축이 100여m 되는 타원형으로 이 돈에는 3개소의 포좌(砲座)와 총좌(銃座) 100여 개가 있다. 그 외 조선시대 대포 1문이 포각(砲閣) 안에 전시되어 있다. 지금도 성채와 돈 옆의 소나무에는 전투 때 포탄에 맞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당시 미국 및 일본과 맞서 격렬하게 싸웠던 전투 상을 그대로 전해 준다. 나머지 파괴된 문루와 돈대(墩臺)는 1976년에 복원하였으며, 당시 전사한 무명용사들의 무덤과 어재연(魚在淵) 장군의 전적비 등을 보수·정비하였다.

## 초지진 홍이포

조선 영조 때부터 주조하여 사용한 포구장전식 화포로, 길이는 2.15m·무게 1,800kg·구경 100mm이며 사정거리는 700m이다. 강화도의 여러 포대와 진·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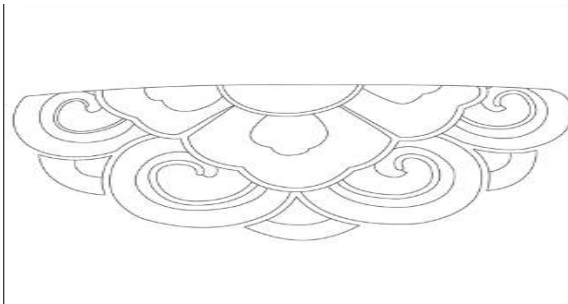




▲초지진 홍이포

는 홍이포(紅夷砲)가 전시되어 있지만 모조품이 아닌 진품은 초지진(사적 제225호)의 홍이포 단 하나뿐이다. 폭발하는 힘으로 포탄은 날아가지만 포탄 자체는 폭발하지 않아서 위력이 약한 편이다. 1866년의 병인양요, 1871년의 미국 아시아함대 침입,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사건 때 사용되었다. 정면 3칸·측면 1칸의 포각 안에 전시되어 있다.

## 연꽃문 - 초지진 포대 기둥



▲초지진 포대 기둥의 연꽃문

연꽃은 불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만큼 다양한 불교 관련 유물에 장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연꽃문은 삼국시대 불교의 유입 이후로 우리나라의 많은 예술품과 생활도구에 연꽃이 표현되었다. 유교에서의 연꽃은 군자의 청빈과 고고함에 비유되었고 도교에서는 팔선(八仙) 가운데 하나인

하선고(荷仙姑)가 가지고 다니는 신령스러운 꽃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연꽃문은 중심 무늬 외에 보조 무늬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보조무늬로 사용되는 연꽃무늬는 형태가 다양하여 단순히 한 줄로만 배열한 것과 뒤쪽의 꽃잎이 보이도록 이중으로 표현한 것, 꽃잎의 모양을 완전 변형시켜 사각 모양으로 도안한 것 등이 있다.

## 병인양요

17 이재원

### 병인양요의 재조명



▲정족산성 전투

### 개요

1866년(고종 3년) 초 대원군은 천주교 금압령을 내리고 대대적으로 천주교도들을 탄압하였다. 이로 인해 프랑스 신부들과 수천 명의 천주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를 병인사옥 혹은 병인박해라고 부른다. 이 박해 때, 프랑스신부 12명 중에서 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 화를 면한 프랑스 신부 리텔이 중국으로 탈출하여 주중 프랑스 함대사령관 로즈 해군소장에게 박해 사실을 알리고 보복원정을 촉구하였다. 현지사령관인 로즈는 프랑스해군성의 명령을 받아 군사적 응징

을 단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으로 병인양요가 시작된다.

## 전개

로즈의 제1차 원정은 강화해협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해역에 대한 지리적 정찰, 항로탐사 그리고 수도 서울까지의 항로탐측을 위한 예비 원정이었다가 로즈는 군함 3척을 이끌고 1866년(고종 3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천 앞바다를 걸쳐 서울 양화진을 통과하여, 서울 근교 서강까지 이르렀다. 로즈의 함대는 세밀한 지세 정찰과 항로 탐측을 한 끝에 지도 3장을 제도하여 제 2차 조선원정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10월 5일 로즈는 한강 봉쇄를 선언하고 10월 11일에 제 2차 조선원정길에 올랐다. 순양전함 게리에르를 비롯하여, 모두 군함 7척을 이끌고 10항도 및 수로 안내인으로 탈출에 성공했던 리델신부와 조선인 천주교도 최선일 최인서 심순여의 안내로 강화도 앞바다에 와서 서울진격의 교두보인 강화도를 향해 맹포격을 퍼부었다. 조선군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로즈는 10월 16일 강화부를 한 달 동안 점령하고 조선신민에게 조선원정을 결행하게 된 이유와 프랑스 선교사 학살을 규탄하는 포고문을 보냈다. 강화도가 함락되자 조선 정부는 순무영을 설치하고 제주목사에 있었던 천총에 임명된 양헌수를 임명하고 출정하게 하였다. 양헌수는 대군을 이끌고 통진부에 진을 치고 강화도 수복계획을 구상했다.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10월 26일 문수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에게 제압당했다. 대원군은 한성근, 양헌수가 이끄는 군대를 보내,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공격하여 물러나게 했다. 특히 정족산성에서는 근대식 병기로 무장한 프랑스군을 뛰어난 전력으로 화력 면에서 크게 뒤져있음에도 프랑스군을 격퇴시켰다. 정족산성에서 패한 프랑스군은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로즈함대는 원정을 포기하고 11월 10일 강화도를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병인양요는 서양제국이 조선을 무력으로 개국시키고자 최초로 기도한 최초의 무력충돌 사건이다. 하지만 프랑스군이 한 달 동안 강화도를 점령하면서 직지심체요절과 같은 문화재를 훼손하고 장녕전 등 모든 관들을 불태우고 19상자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은괴와 대량의 서적들을 가지고 중국으로 떠났다.

## 신미양요

17 최건

### 신미양요란

신미양요는 1871년(고종8년)에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책임과 조선과의 통상 교섭을 명분으로 미국의 군함이 강화도에 쳐들어오면서 벌어진 조선과 미국 간의 전쟁이다. 조선에서는 신미년에 일어났다고 하여 신미양요라 하였고 미국은 이 사건을 1871년 한국 군사 작전 혹은 미-한 전쟁이라고 한다.

###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된 원인

조선은 중국과 일본 등 제한적인 국가들과만 외교를 유지하였다. 17세기 이후 항해술의 발달로 서양의 존재가 알려졌지만 서양의 국가는 외교의 상대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이러한 시기에 서양의 열강들은 아시아 곳곳을 다니며 통상을 요구하며 제국주의적 침탈을 하였다. 1866년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며 횡포를 부리다 관민으로부터 불에 타게 되었다. 이후 미국은 이를 빌미삼아 조선에 통상과 조약을 요구했고 조선은 거절하였다. 결국 외교적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조선을 침략하였고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 신미양요 전개 과정

미국은 조선의 주요 물길이었던 강화도를 거슬러 올라왔다. 조선 측은 이를 거부했지만 무시하고 침입을 시도하여 전투가 일어났다. 그 당시 미국은 아시아 함대라는 막강한 해군을 거느리고 침략한 것이었다. 미군 함대는 먼저 인근을 정찰하였고 강화도 인근에 정박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조선은 강화도가 격전지가 될 것을 예상하고 ‘어재연’을 진무중군으로 임명하여 방어하도록 하였다. 전쟁 당일, 미국은 군함을 보냈고 조선군은 대포로 포격하였다. 광성진 앞에 집결한 미군은 포격을 개시하였고 포격을 마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포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선도 이에 대응하였지만 미군의 피해는 미비하였다. 미군은 초지진에 상륙하였고 조선군과의 백병전에서 우세한 전력으로 하루 만에 점령하였다. 가장 격렬한 전투가 일어난 곳은 ‘광성보’이다. 미군은 근처 대모산에 포를 설치하였고 광성보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광성보 안에도 포가 있었기 때문

에 맞대응 하였고 8시간 정도 전투가 이어졌다. 광성보도 결국은 점령당하였고 조선군은 덕포진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조선 측은 ‘어재연’ 등 240여 명이 전사했고 100여명 등이 포로가 되기 싫어 자살하였다. 미군은 피해가 미비했다.



▲가장 격렬한 격전지였던 광성보

## 결과 및 영향

신미양요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조선 측의 입장에서 보면 외세를 몰아낸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은 척화비를 세우며 외세 배척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또한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더욱 더 강화하게 되었고 조선의 배외 감정만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이 이후 여러 차례 교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 미국 측은 참전한 해병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였고 조선 침공을 통해 미국도 제국주의의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였지만 이득을 많이 얻지 못하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 성공회 강화성당

17 홍채은

### 성공회의 개관

성공회는 헨리 8세와 캐서린 왕비의 이혼소송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당시의 교황인 클레멘트 7세가 이혼 소송을 강하게 반대하자 헨리 8세가 반발하며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을 영국 왕에게 종속시키기 위해 생겨난 기독교종파이다. 성공회는 구교와 신교의 극단적인 것을 지양하고 각각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성공회는 남자만 사제가 될 수 있는 로마 가톨릭교와 달리 여자도 사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사제의 혼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을 지닌다.

### 성공회 강화성당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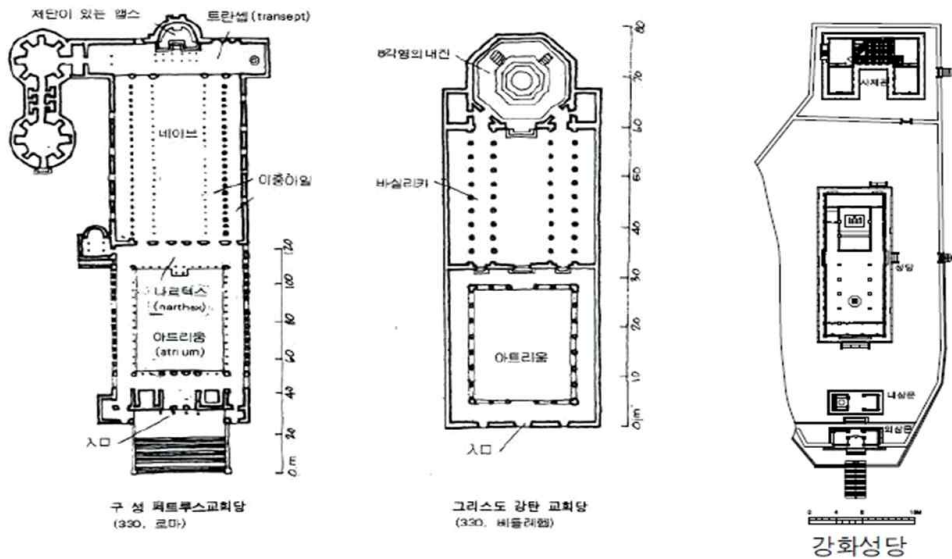
▲ 성공회 강화성당 전경

성공회 강화성당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성당이다. 대한성공회의 초대 주교인 코프(Corfe, C. J.)에 의하여 1900년(광무 4)에 건립되었다. 대한성공회의 역사는 1889년 코프가 초대 한국 주교로 영국에서 서품을 받음으로써 시작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의 신자도 없었고, 한국인에게 처음 세례를 베푼 것은 주교 축성이 있는 지 7년 뒤인



1896년 6월 13일 강화에서였다. 대한성공회에서는 이러한 인연으로 강화에 제일 먼저 성당을 건립한 것인데, 대한성공회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게 되었고, 현존하는 한옥 교회건물로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성공회 강화성당은 서유럽의 바실리카(Basilica)양식과 동양의 불교사찰 양식을 과감하게 조합시켜 건립하였다. 교회의 내부공간은 바실리카양식을 따랐고, 외관 및 외부공간은 불교사찰의 형태를 따랐다. 이러한 서양과 동양의 건축양식을 따른 구조는 1896년 영국의 성공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토착신앙이 강한 우리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부감 없이 새로 전래되는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민중 사이에 뿌리내리고자 했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이다. 이에 더해 성공회 강화성당에는 특이점이 있다. 강화성당 본당 다섯 기둥에 한문이 쓰여 있는 것이 특이한데, 이를 아래 3번에서 자세히 알아보려고한다.



▲바실리카 양식과 강화성당의 구조

## 성공회 강화성당 본당의 5개의 한문

福音宣播啓衆民永生之方 (복음선파계중민영생지방)

“복음을 널리 퍼라 민중에게 영생의 길을 깨우치라.”

神化周流罔庶物同胞之樂 (신화주류유서물동포지낙)

“하느님은 (물이) 동산을 둘러 흐르게 하시고 만물을 살찌우시니 동포의 기쁨이라.”

三位一體天主萬有之眞原 (삼위일체천주만유지진원)

“삼위일체 천주님 세상의 참 근원이시라.”

宣仁宣義聿昭拯濟大權衡 (선인선의울소증제대권형)

“인(仁)을 베풀라 의(義)를 베풀라 스스로 밝히고 구제하는 일이 큰 정의라.”

無始無終先作形聲眞主宰 (무시무종선작형성진주재)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짓기 전에 소리를 드러내시니 참 주재시어라.”



## <참고문헌>

### 1. 강화도 지역개관

신정일,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4 : 서울·경기도』, 다음생각, 2012

### 2. 강화역사박물관

강화 역사 박물관

<<http://museum.fanghwa.go.kr/>>

### 3. 강화지석묘

서울대학교 박물관, 『강화지석묘(부근리고인돌) 주변 시굴조사 약보고서』, 서울대학교, 2004

강동석, 『강화 지석묘의 구조와 분포분석』, 「박물관지 4호」, 2002

이형구, 『강화도 고인돌무덤 (지석묘)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4. 전등사

김희균, 『답사여행의 길잡이 7 - 경기남부와 남한강』, 돌베개, 2012

### 5. 정족산사고

이우중, 『정족산사고 장사각(藏史閣)의 건축적 형태 연구』, 2014

### 6. 삼랑성

『외규장각의 도서반환을 촉구한다』, 「미술세계」, 2001

이태진, 『외규장각 도서의 유래와 1866년 프랑스 해군에 의한 방화 약탈 작전의 소장 상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집부, 『국역 증보문헌비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6

정인지, 『고려사』, 누리미디어, 1998

### 7. 고려궁지

박찬영, 정호일, 『한국사를 보다4』, 리베르 스쿨, 2011

### 8. 갑곶돈대

배성수, 『숙종초(肅宗初) 강화도(江華島) 돈대(墩臺)의 축조와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003

김희균, 『답사여행의 길잡이 7 - 경기남부와 남한강』, 돌베개, 2012

9. 광정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 7 - 경기남부와 남한강』, 돌베개, 1996

10. 덕진진

컬튼스토리, 『지붕없는 박물관 강화도 테마 기행-전적지/산성/고인돌』, 유펜이퍼, 2013

최태성·박광일,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근대편)』, 씨앤아이북스, 2014

알바투스여행, 『우리 동네 방방곡곡 역사여행 : 인천광역시』, 알바투스, 2017

11. 초지진

김희균, 『답사여행의 길잡이 7』, 돌베개, 2012

12. 병인양요

권혁수, 『병인양요와 중국 청정부의 대응 연구』, 「백산학보」 제 65호, 백산학회 2003.

권희영, 『문명의 충돌과 병인양요』, 정신문화연구원, 2001

권희영, 『병인양요의 역사적 재조명』, 정신문화연구원, 2001

13. 신미양요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셔먼호 사건에서 신미양요까지』, 역사비평사, 2005

『조선왕조실록』, 고종8년, 4월8일~16일 기사 부분 발췌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17: 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세계 열강』, 한길사, 2003

14. 성공회 강화성당

김수자, 『섬 전체가 역사박물관인 강화도 - 지식묘 군, 이규보 묘, 성공회 강화성당』, 새가정사, 1999

이환진, 『[신학기고] 성공회 강화성당 본당 다섯 기둥에 써있는 한문 문장』, 「대한기독교서회」, 2014

# 만든 사람들

## 편집자

16 최윤희

17 권오현

17 천지현

## 제작자

역사기행반 17학번

亞洲大學校 史學科

歷史紀行班

2017. 6.